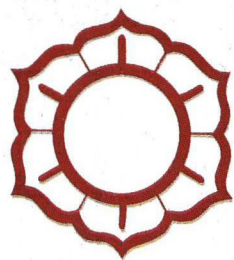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3년
4월 1일
화요일
제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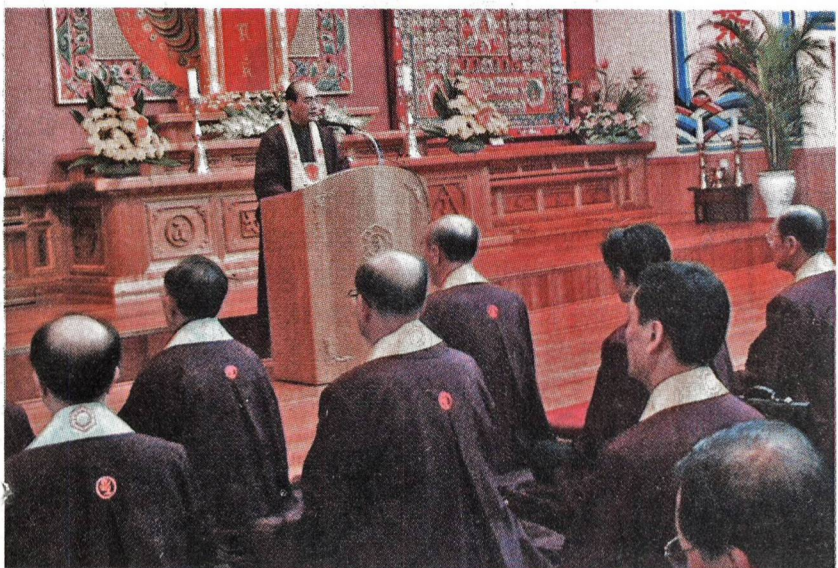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뭇 때문에 일체 사물을
알려고 구하는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제61회 춘계 강공회 종단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법공 총리원장이 전국 스승님들에게 종단발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총지중 총리원장(법공)은 종단 내 모
든 승직자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제61
회 춘계강공회를 4월 23일부터 4월 25

죽비소리

삼악도(三惡道)의 괴로움을 가져
오는 데는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가 되고
욕바라짐중에서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간담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
비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
거든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울 때도 한 물건 없이 왔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살아생전 아무리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오직 지은 업뿐이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하루 아침의
티끌이 되느니라.

- 자경문 중에서 -

일까지 2박3일동안 총리원에서 개최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강공회에서는 승단총회를 개최
하여 결원된 종의원을 선임하고, 종단내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교화활성화를 위한 토의와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한다.

또한 종의회의 원의회를 개최하여 총
기31년도 총리원, 유지재단, 법장원, 사
회복지재단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특히 종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한 안건과 법규 및 그동안 종단내에서

종조 원정대성사 일대기, 원로스승 행장정리 작업 추진 총지중의 교상과 사상정리, 정체성 확립으로 밀법홍포

총지중 법장원과 총리원 교정부는 종
단의 독자성과 주체성, 정통성을 확립하
기 위해 3월 24일부터 특정 종령님과
법장화 등 기로스승들을 직접 방문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기로
스승들의 행장을 기록, 기록하고 있다.

기로스승기로스승 다음으로 총지화, 일
성해, 경관, 대도행 등 중부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기로스승과 불멸심, 시각화,
삼정행 등 중부이남지역에 거주하는 기
로스승, 그리고 정정심, 밀공정, 환수원,
사화화 등 현직 스승님들과 종조님의
친·인척, 창종당시 종조님과 같이 생활

문제로 거론된 법규를 개정하고, 종
단내 각 기구의 결원된 임원들을 선임
하고, 지난달 실시한 총리원,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집
행부에 대한 중무행정을 수정하고, 대안

관성사 신축건물 공사 승인 부지선정과 설계의뢰 예정

총지중 총리원장(법공)은 지난 3월
17일 관성사(주교 해정) 신축건물 공사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당건설 위원회
를 소집하여 관성사 신축건물 공사를
위한 설계업자를 선정하여 건물설계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결정하
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건물 설계시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차후 사원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지금까지 필요성을 인식
하였지만 등한시 되었던 건축모형을 설
정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사원건물 모델
에 대한 당위성이 거론되었으며, 모든
공사관계에 있어서 감독관을 선임하여
감독해야 한다는 사항이 공론화 되었다.

이날 전당건설 위원회에서는 관성사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관
성사 주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대지

을 제시한다.

또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재양
성, 교화발전, 전당건설, 종유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에 대하여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
다.

한편 총리원장(법공)은 총리원장 취
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처음 맞
이하는 강공회로 이번 강공회를 통해
종단발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
하고, 시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
정이다.

매입과 건물규모와 양식, 공사금액을 결
정하도록 하였다.

총지중 대구지하철 참사 위로금 전달

고통받는 사람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

총지중 총리원장(법공)은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많
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발생하여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
로하기 위해 3월 4일 불교방송을
통해 위로금 천만원을 전달하였
다.

위로금을 전달한 총리원장(법공)
은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의 기본
진리를 실현하고 항상 이웃과 아픔
을 공유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
의 정신을 바탕으로 유가족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사
망자에 대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
며, 부상자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법공 총리원장 "남북3.1절 공동법회" 참석 이땅에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평화통일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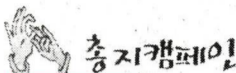
◇법공 총리원장이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에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3.1절 기념 통
일기원을 위한 남·북 불교계 합동법회'
가 3월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
(주지 원혜)에서 북한에서는 황병준 조
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등 조불련 관계
자 6명과 남한에서는 총지중 총리원장
법공,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등 500여명
의 사부대중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
었다.

이날 법회에서 황병준 조선불교도연
맹 부위원장은 "이 땅에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
해 남북 불교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을 올린다"고
하였다.

총지중은 수 해전부터 조불련과 인연
을 맺어 매년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
한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작년에는 조불
련의 초청으로 해암 종사가 북한을 방
문하는 등 북한 불교계와 돈독한 관계
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총지중 총리원장(법공)은 이날
행사에서 공식법회 식순에 의거하여
500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
병준 조불련 부위원장에 선물을 증정
하였으며, 법회 후 조불련 관계자들과
민찬에서 황병준 부위원장은 "총지중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불교도
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엄청난 전쟁경비

보리를 수확 할 때쯤이면 집집마다 식량이
떨어져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를 우리들은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고비
라 하여 보리고개 라고 불렀다. 물론 이제는 지
나간 세월이지만, 그러나 지구상에는 현재에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
을 잃고 있다.

한해에 600만명의 어린이가 5살이 채 안되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50억 전 인류 중 8
억 6천만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모
두가 가난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
고 있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엄청난 전쟁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번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미국 측의 스텔스 전폭기는 그 가격이 대
당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원이고 그 비행기가 한 시간 동안 작전
을 수행하는데 드는 연료비만 1만달러, 약 120
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이러한 전폭기들이 일
천회 이상 출격했다고 하니, 천만달러, 즉 비
행기 연료비만 120억을 썼다는 계산이다. 그뿐
인가 1개만 백만 달러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320개, 50만 달러짜리 유도미사일 700여개, 그
밖에 1500개 이상 투하된 스마트 폭탄과 합동
직격탄 등등 폭탄 값으로 쏟아 부은 금액이 6
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160억원이다. 정말 엄청난 돈이다. 물론 전쟁
비용에 이것만 드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투입
되는 인력과 희생되는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전쟁이 끝날 때
까지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들것이다.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국가도 있
고 미국의 편에 들어 연합군과 같이 전쟁에 동
참하는 국가도 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국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
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움직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
들이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혹은 찬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어느 편이 정의고 어느 쪽이 당위성이 있고 누
가 나쁜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생
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돈도 모자
라는 상황에 생명을 살상하는데 엄청난 경비를
쏟아 붓는 이번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불
제자들 모두 법력을 모아 부처님께 간절하게
빌어 보자.

제61회 춘계강공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 그리고 종단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이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2년 4월 22일(화) ~ 총기 32년 4월 25일(금)
- 장소 : 불교총지중 총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법공



사설

불사법요의식의 혁신을 바라며

법공통리원장이 취임하면서 종단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종단역사에 유례가 없는 개혁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활동성과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원회의 활동 중에서도 지난 3월 말 개최된 불사법요위원회는 종단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불사법요위원회에서는 본종의 불사법요의식을 통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종단의 원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사법요의 정비와 개선에 대하여 그 방법과 수위를 놓고 각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종단의 전반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예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법장원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전체적인 윤곽과 실행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종은 장종 이래 한결 같이 원정종조계서 정립하신 준제법에 의하여 교화를 펼치고 있다. 원정종조계서는 정통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경전에 근거한 정확한 의제법을 정립하시고 이를 포교의 근간으로 삼으신 바, 많은 뜻있는 종도들의 선각적 해안과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총지종은 일약 민방에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이러한 열기는 원정종조의 입적과 함께 교화방편에 대한 더 이상의 개선을 멈추고 매너리즘에 빠져 답답하기에만 급급했던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각 사원마디의 지역적 특성과 교도들의 근기의 상이로 말미암아 불사법요의 부분적인 변형이 가져져 현재는 사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본종의 불사법요는 간편한 수행주요로 이루어져 대중집회에 있어서는 단조로움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사법요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은 종단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사법요위원회의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불사법요의 정비와 개선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의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개선만 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적인 개선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수위조정문제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 그러나 종단내부의 전반적인 기류는 대폭적인 개선을 방황이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는 법장원에서 제출한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장원의 안에 따르면 현재의 준제법을 근간으로 삼고의와 준제 공덕송 등을 첨부하고 목탁이나 요령 등의 법구를 사용하면서 교도대중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사법요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합장으로 대신하는 불전 참배에 대해서도 삼배를 올리는 식으로 교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큰절을 하고 싶어하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이를 허락하여 환희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래나 단조로운 가락에 의한 참회문 등의 계승낭송방식을 개선하여 일반대중이 모두 동참하여 합창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총지종 교도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밀교 전통의 법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음감을 가미함으로써 대중들이 불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불사법요의식을 마련했다고 한다.

금번의 불사법요개선에 대한 논의는 종단의 전반적 개혁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는 종정 운영의 다른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계지들은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사법요위원회는 물론 교리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법장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종단 각 부서에 대한 종단 전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현 집행부 및 최고지도자의 단호하고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종단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법황사 신축건물 완공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 광주 법황사.

법황사(주교 법수원)는 광주지역 건설업체인 국토건설(대표이사 박종학)을 공사업체로 선정, 총기30년 12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총기32년 1월 15일 준공검사를 받고, 단정 및 불단공사 등 내부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법황사는 남구 구동 28-1번지, 368평 대지에 총공사비 약17억4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가와 사택, 지상2층에는 서원당을 배치하여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서원당 내부에는 단정

과 불단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음향, 냉·난방시설 등을 마련하여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인 육자대명 왕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으로 삼밀관행법의 밀교 수행공공으로 손색이 없도록 건축하였다.

법황사는 총기13년(1984년) 광주시 금동 186-1번지에 독립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설단불사를 거행하여 원덕서원당으로 명칭하고 현 주교인 법수원 전수를 초대주교로 임명하여 교화를 시작하여 다음해 7월 남구 구동 29-18에 단정건물을 매입하여 법황사로 개칭하였다.

그동안 허스름한 건물에서 비가오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아가며 수행하던 법수원 전수와 교도들은 "신축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해 호남지역 교세확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부처님의 포교사업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법황사 헌공불사는 부처님 오신날 행사후 봉행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연구과제 제시

총지종 총리원장(법공)이 취임한 후 종단 내 모든 승직자, 종무원들이 종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종단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몇 회에 걸쳐 토론회와 회의를 시행하여 왔으나 분과위원회의 성격과 법적인 위상,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시행방법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부각하게 되어 2월 27일 총리원장(법공)은 전당건설 위원회 위원장(우승), 교화발전 위원회 위원장(법정), 불사법요 위원회 위원장(해안), 종헌·종법 위원회 위원장(지강), 흥법·포교 위원회 위원장(지공),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정법계), 도제양성 위원회 위원장(정인화), 재정지립 위원회 위원장(시정), 총괄기획 위원회 위원장(지상)들을 총리원으로 소집하여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활동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공정사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를 교구별로 분류하여 교구에서 개최하면 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

했다. 해안 정사는 "현재 9개 분과위원회로 분류되어 있는데 몇 개의 분과위원회는 성격과 활동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양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우승 정사는 "현재의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운영도중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총리원장(법공)은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몇 개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통합 방안



종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했고 있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정부

종단의 발전과 교정부 활동에 관하여

인연따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에 대한 소극적인 수순보다는 모든 것이 인연인 줄 안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단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교화활동이요, 교세확장에 있습니다.

교화를 활성화 시키고 교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교의 진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의 종단 교화발전은 현재 우리가 행하는 노력여하에 달려 있고,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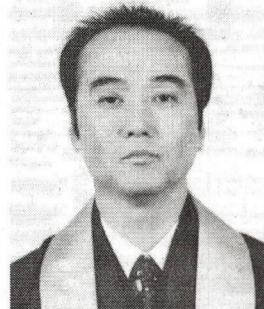
청소년 교화가 미래의 교화발전과 교세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정성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도교사의 양성과 지원으로써 적극적인 교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종단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과를 잘 알고는 있으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과에 어두운 것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좌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립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정부장 정등자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오늘이라는 현실 문제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지 아니한다면 내일이라는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알면서도 적절하고 과감한 조치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열린 과일만 따먹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엮은 지은대로 받는 것이 누가 열여주고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나무를 심지 않고, 깎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 일수록 지치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리적, 교학적 연구 활동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학계를 대상으로 한 논문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시작하여 꾸준히 전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충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더욱 발전 계승하고, 종조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도 작지만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태·금양부 만다라의 대내외 홍보 및 친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교정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합니다.

알림방

- 부산·경남교구회에서는 2월 14일 해암종사를 교구장에, 경원정사를 총무에 선출하였음.
- 기로서승인 수성님이 신장암으로 3월 19일 대구 기틀리병원에 입원함.
- 3월 27일 총리원에서 불사법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3월 27일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사직한 현목후임으로 인선을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선출함.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3년 3월 14일까지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벽룡사 박은숙 5,000	실지사 주영해 3,000	통리원 법 공 50,000
개천사 손 식 20,000	밀인사 김춘옥 10,000	벽룡사 추정환 5,000	실지사 최채숙 5,000	통리원 무명씨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성회사 우담바라 10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해정사 김경순 15,000
관성사 박현숙 20,000	밀인사 박순이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운천사 이형란 10,000	해정사 박종석 5,000
관성사 이순삼 30,000	밀인사 박순자 30,000	수인사 원 봉 10,000	자석사 배무자 10,000	해정사 수증원 2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육근희 5,000	수인사 최공자 15,000	자석사 정총기 20,000	해정사 정은선 15,000
관성사 홍순화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박운용 10,000	해정사 조숙자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이재호 2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박 훈 10,000	해정사 해보심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김복산 5,000	정각사 신옥필 15,000	흥국사 강문석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한영일 5,000	실지사 김해승 3,000	정각사 윤원숙 10,000	흥국사 강한빛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행사 교도일동 100,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김정님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손기성 20,000	정각사 이옥희 35,000	심미자 5,000
덕화사 손선경 5,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이명환 3,000	정각사 정금순 6,000	지심행 10,000
덕화사 손희경 5,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이숙례 3,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진관사 10,000
덕화사 이지출 10,000	벽룡사 박덕서 10,000	실지사 이숙자 1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최석태 5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벽룡사 박옥련 12,000	실지사 이화수 10,000	지인사 류윤자 3,000	함정후 5,000
만보사 이창남 10,000	벽룡사 박은숙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황병철 5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인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탈의
설법문안

수행하는 사람은 하심(下心)을 가져야 한다

『자경문』을 보면 “인(仁)을 닦고 인을 얻는 데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아(我)·인(人)·중생(衆生)·수자(壽者)·사상(四相)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에 더 깊이 빠진다.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듯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 없음을 씩은 배와 같으니,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나 ‘너’니 하는 상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下心)하는 사람에게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노래하노라 교만한 티끌속에 지혜는 묻혀만 가고, 아상·인상 신위에서 무명은 사라진 가네. 제 잘난 체 안 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원만한 가득하리.”

아운스님은 자경심문에서 “망령되어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생각이 빠져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덕이 높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모아줄 줄 아는 사람. 여기 잡들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러한 카네기야말로 자기가 거느린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카네기는 체세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체세술의 요점은 “친절하라, 겸손하라, 호감있게 보여라, 상대방의 이름을 잘 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입니다. 실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려면 화과 평화와 생기고 서로 잘 잘하며 대립하면 불온과 파탄만 초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높이지도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운스님은 “아(我)·인(人)·중생(衆生)·수자(壽者)·사상(四相)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에 더욱 깊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의 수렁에 깊이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상(我相)은 ‘나’라는 생각이 가득하여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제일이다.’ 하는 생각,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몸뚱이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차츰 낡아 부서지듯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더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왕도 한 줌의 흙으로 바뀌었고, 그 잘났던 독재자도 마침내는 죽어 영대왕 앞으로 갔습니다. 물질은 오래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정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변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흐름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는 끊임없이 변화가 사라지는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 인양 내세우고 있으면 고통만 따를 뿐 수행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아상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상이 없어지면 결국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인상(人相)도 따로 내세울 것이 없어 사라지게

됩니다. ‘너는 너’라는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라는 분별이 사라지면 중생상도 수자상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상도 강해지고 중생상, 수자상도 강해집니다. 중생상(衆生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을 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들을 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업이 중생상입니다. 수자(壽者)상은 생사에 대한 끈끈한 모습입니다. 몇 해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수자상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익을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어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원인(因), 인상이 연(緣)이 되어 생존 투쟁의 업(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운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

자상이라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은 인(因)·연(緣)·업(業)·과(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상을 없애고 인상·중생상·수자상을 저절로 사라지게 합니다.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들을 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업이 중생상입니다. 수자(壽者)상은 생사에 대한 끈끈한 모습입니다. 몇 해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수자상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익을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어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원인(因), 인상이 연(緣)이 되어 생존 투쟁의 업(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운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

자상이라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은 인(因)·연(緣)·업(業)·과(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상을 없애고 인상·중생상·수자상을 저절로 사라지게 합니다.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들을 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업이 중생상입니다. 수자(壽者)상은 생사에 대한 끈끈한 모습입니다. 몇 해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계획하는 것이 모두 수자상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익을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어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원인(因), 인상이 연(緣)이 되어 생존 투쟁의 업(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운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

생활속의 밀교

늘 바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같은 교도소에 갇힌 두 죄수가 있었다. 그들은 손바닥만하게 난 창으로 하루종일 바깥을 내다보며 살았다. 한 죄수의 눈에는 늘 견고한 콘크리트 벽만 보였고, 다른 죄수의 눈에는 벽너머에 있는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별이 보였다. 세월이 흘러 두 죄수는 형기를 마치고 같은 날 나란히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간혀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늘 꿈을 키우던 사람은 그 뒤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 바라보던 사람은 지난번 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다.「전쟁터에서 큰 싸움을 치르다가 심하게 부상당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다. 마침 한 병사의 수통에 약간의 물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얼른 부상당한 동료에게 수통을 건넸다. 수통을 받은 병사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위로 젓다가 불현듯 주위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눈길이 자신이 들고 있는 수통으로 향해 있음을 알아챘다. 병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목마름을 꼭 참으며 대장에게 수통을 넘겨주었다. 대장은 차마 물을 축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수통을 넘긴 병사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수통을 받아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셨다. 그런 다음 다시 부상당한 병사에게 건네주었다. 병사가 다시 수통을 받아들고 보니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 역시 대장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병사는 대장처럼 수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내어 달디단 표정으로 마셨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다른 병사에게 수통을 건넸다. 나중에 수통은 본래의 입자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수통의 물은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 있었다.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위의 두 글에서 우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밀면(一面)을 보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이요,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바른 정신이 깰 수가 없다. 또한 바른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바른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은 항상 공존하여 얽혀라 뒤틀려라 한다. 그 전쟁터는 늘 우리들 가슴 속에 숨어 있다. 바른 마음으로 진실로 열정을 다해 살아갈 일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 불보살(佛菩薩)의 가시력(加持力)이 다가 올 것이다. **〈법정원 연구원 법경〉**

지상설법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단향사 자선화 지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나의 친척들은 왜 내게 달라붙어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 건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병에 걸리는 걸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에 실패했을까?”

이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달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있을

며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의지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일이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중생들의 힘과 사물들의 힘이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서로 친하는 법이 있다. 자제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서로 친하는 법인가. 이른바 살생하는 이는 살생하는 이와 친하고, 도둑질·음행·거짓말·꾸밈말과 탐욕·성냄·삿된 사건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서로 친한다. 비유하면 더러운 물건은 더러운 물건과 서로 화합해 가는 것처럼, 살생은 살생과 삿된 사건은 삿된 사건과 서로 친하느니라.”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업이 개개인에게 관여하고 있지만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살아가는 공통된 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타인들의 업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달리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업중생(共業衆生)’이라 합니다. 즉 그러한 업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며 무리 중생들의 말이나 행위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업중생(共業衆生)’의 업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자신이 지은 업이 살 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지를 판단하여 그에 합당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인과법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과거의 업은 행함에 따라 현재의 과보를 받고 현재의 지은 업의 행위에 따라 미래의 과보를 받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은 자신의 업이라 할 지라도 다른 중생의 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법과 운명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벼를 살펴보면 비의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비일지라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연(緣)인데 벼라는 근본원인과 대지와 온도, 영양분이라는 조건이 합쳐져서 결과인 새로운 벼를 만들어 냅니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서로 섞여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배를 저으면 각자가 지은 방향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자신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그 가정의 공통의 과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축을 하는데 자식이 마구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인과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중생이 어울려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실을 계속 짜면 옷이 됩니다. 지금의 내가 행하는 업 그

리고 원인은 바로 한 줄의 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옷의 모양과 같은 선악의 과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저지르거나 선한 일을 할 경우 당장에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수십년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죽은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주립(法苑珠林)』에 “모든 부처님의 신력(神力)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력(業力)도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듯이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해서 시간과 공간에 장애받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쌓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좋고 즐거운 과보를 받습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악하고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합들어도 지금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인(因)에는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있다. 그런 중생은 몸이 헐어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나쁜 세계 저쪽에 떨어진다. 비유하

면 둥근 구슬을 공중에 던지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굴러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나쁜 업의 인은 저쪽에 떨어져 고통에 산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 원인이나 이전의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련존자는 길가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비구형상을 하고 쇠판을 웃으며, 아니면 죽은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주립(法苑珠林)』에 “모든 부처님의 신력(神力)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력(業力)도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듯이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해서 시간과 공간에 장애받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쌓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좋고 즐거운 과보를 받습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악하고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합들어도 지금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인(因)에는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있다. 그런 중생은 몸이 헐어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나쁜 세계 저쪽에 떨어진다. 비유하

면 둥근 구슬을 공중에 던지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굴러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나쁜 업의 인은 저쪽에 떨어져 고통에 산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 원인이나 이전의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련존자는 길가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비구형상을 하고 쇠판을 웃으며, 아니면 죽은 후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주립(法苑珠林)』에 “모든 부처님의 신력(神力)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업력(業力)도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듯이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해서 시간과 공간에 장애받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쌓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좋고 즐거운 과보를 받습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힘 때문에 반드시 악하고 괴로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합들어도 지금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인(因)에는 나쁜 업의 인, 나쁜 마음의 인, 나쁜 소견의 인이 있다. 그런 중생은 몸이 헐어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나쁜 세계 저쪽에 떨어진다. 비유하

를 찾고, 자주 법문을 들을 때 선한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장엄경론』을 보면 “그대는 저 수레를 이끌어 가는 소를 보았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에는 소를 채찍질해야 하고 수레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은 지라, 이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대는 마음에 붙을지 저야 하거나 왜 쓸데없이 몸을 못 견디게 하는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삼악도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할지라도 비천한 사람이 되어 남의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잘 살펴보고 나쁜 행위를 버리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면 두려움과 공포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폭풍이 오면 파도는 크게 일고 조용한 바람이 불면 파도는 고요해 지듯이 자신의 선악행위의 바람에 따라 고통의 업(業)파도는 크게 일고 잔잔해 지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과 불행의 업(業)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삼보와 인연을 맺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선한 행위를 가정과 사회에 실천해야 합니다.



종립 동해중 불교반 전시회에 전시할 전시품을 수집합니다

“

종립 동해중 불교반에서는 충기32년도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맞이하여 불교 충지중 정각사 1층에 전시실을 마련하여 불교용품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각자님, 보살님들이 가정에서 소장하고 계신 불교관련 용품들을 수집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전시품목 : 불상, 탕화, 액자, 족자, 사진, 불화, 불경 등
- 전시예정일 : 충기32년 5월 1일(목) ~ 충기 32년 5월 11일(일)
- 전시장소 : 불교 충지중 정각사 1층
- 전시품목 접수기간 : 충기 32년 4월 21일(월) ~ 충기 32년 4월 28일(월)
- 전시품목 반환기간 : 충기 32년 5월 12일(월) ~ 충기 32년 5월 14일(수)
-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8-25 동해중학교

동해중학교 행정실 (051) 556 - 0281
정각사 중무실 (051) 552- 7901

종립 동해중학교 교장 강 경 중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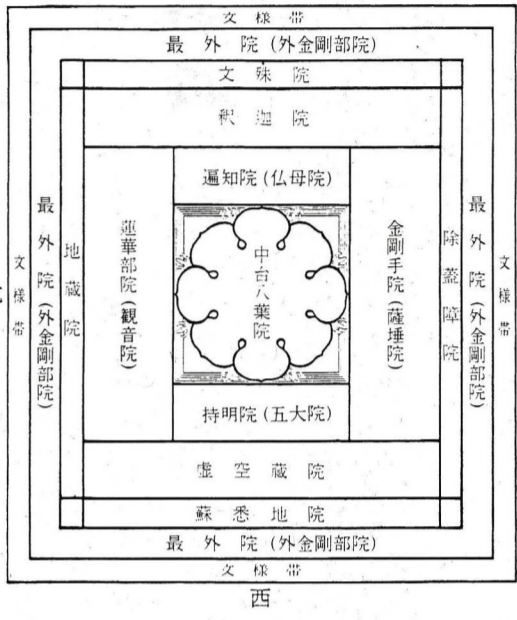
지난 12월 한국불교 최초로 봉안했던 양부만다라의 봉안은 밀교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태장계만다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장계만다라가 갖는 의의(意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단지 '태장(胎藏)'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본다.

이 태장이라는 사고방식은 불교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태장'이란 생명의 근원인 모태(母胎)를 의미하지만, 대승불교가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처, 즉 불성(佛性)을 잉태하고 있는 모태를 중생 누구인가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래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찬탄이며, 인간의 존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고도 할 수 있으나, 반면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비탄이기도 한 것이다.



태장은 생명의 근원을 잉태한 여래장 중생을 구제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

태장계만다라는 이 여래장이라는 사고를 계승하면서도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인 모태가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래장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잉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으나, 태장계만다라는 여래장의 사고를 넘어 가능성이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여 보다 긍정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마음, 즉 보리심(菩提心)을 구축하고 있는 자가 중생과 함께 고뇌하며 함께 신음하면서 대비(大悲) 중생구제의 전생명(全生命) 활동(방편)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가 펼쳐는 광대한 생명의 모습이 태장계만다라에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각원(各院)이 순서대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으로 점차 넓혀져 가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경』구연품에 의하면, 태장만다라는 세 겹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삼중(三重) 구조라 한다.

삼중(三重)이란 중대팔엽원을 둘러싸고 있는 각원(各院)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의미를 부여한 구조(構造)를 말한다.

초중(初重)은 변지원(遍知院)·지명원(持明院)·연화부원(蓮華部院)·금강수원(金剛手院)이라고 하는 사대원(四大院)이다.

제2중(第二重)은 석가원(釋迦院)·문수원(文殊院)·허공장원(虛空藏院)·소실지원(蘇悉地院)·지장원(地藏院)·제개장원(除蓋障院)이라는 육대원(六大院)이다.

제3중(第三重)이란 최외원(最外院)을 가리킨다.

이러한 삼중구조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 해석은 『대일경』 「주심품」에서 살하고 있는 '보리심(菩提心)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大悲)를 근(根)으로 하고, 방편(方便)을 구경(究竟)으로 한다'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를 '삼구(三句)의 법문(法門)'이라 한다.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지혜가 대비심에 의하여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중대팔엽원은 대일여래의 깨달음의 근원을 가리키며, 팔방으로 벌어진 연일 위의 4불(四佛)·4보살(四菩薩)은 깨달음의 지혜의 내실(內實)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일여래의 깨달음이 사방으로 펼쳐 넓어지면서 현실세계에 기능적

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을 나타낸다.

두번째 해석은 '밖에서 안으로', 즉 '수행자는 범부에서부터 부처의 경지로 차례대로 자신을 높여간다'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삼구의 법문'에 대하여 '부처의 삼신설(三身說)'의 입장에 서는 견해이다. 삼신(三身)이란 자성신(自性身-깨달음 그 자체), 수용신(受用身-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보는, 즐기는 부처), 변화신(變化身-갖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됨을 인도하는 부처)을 말한다.

이 중에서 수용신은 자수용신(自受用身-스스로 즐기는 부처)과 타수용신(他受用身-다른 자에게 즐기게 하는 부처)으로 나뉜다. 이 삼신(三身)을 삼중구조에 적용시키는 것이 두번째 해석이다. 즉 중대팔엽원은 자성신, 초중(初重)은 자수용신, 제2중은 타수용신, 제3중은 변화신에 배당(配當)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다양한 중생들을 인도하여 대일여래의 경지로 향하게 하는 방향성(方向性)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대일여래의 이면성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한 것이 바로 태장계만다라인 것이다.

〈법정원 자료제공〉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 한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이다. 사계절 중 봄은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봄은 희망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절은 봄으로 달려가는데, 인간 세상은 거꾸로 가는가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참하게 감행하고 있는 이라크 침공으로 전세계는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 속 봄은 언제나 찾아올 것인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반대를 공식 표명하였고, 미국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루에 바그다드에 1000개의 미사일을 쏠 만큼 무차별적인 유단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 속에서 어찌 "평화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도시와 유적이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고 상처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어린아이들에게 이번 전쟁은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평화의 씨앗을 말라 죽게 하고, 폭격과 증오와 두려움의 씨앗을 남길 것이다.

전쟁은 가장 큰 악행이요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악행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의 고사하고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고 파병을 결정하였다. 파병의 이유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특히 6·25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참혹한 내전을 치른 우리나라에게 전후 세대와 이전 세대의 사고는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틱낫한스님의 방문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평화를 향한 의지를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틱낫한스님은 "경청과 사랑스럽게 말하기"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와 국가간에도 평화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남북 관계는 훨씬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도와주기로 약속한다면 남북한의 대립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틱낫한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일이다.

오래 기운에 첫 번째가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러므로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이다. 이러한 불살생계를 실천해야 할 우리 불자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스스로 이라크를 찾아 인간방패가 되기를 자처한 평화 운동가들이 있다.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결연한 모습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보살을 본다. 부처님께서 배고픈 맹수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것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야말로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따뜻한 봄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공포에 떨고 있을 이라크 사람들과 자국이끼 주의의 욕망에 불타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보낸다.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 한주영〉



아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요령(搖鈴)과 경(磬), 금강저(金剛杵)

요령(搖鈴)은 고음의 작은 종을 흔들며 염불을 할 때 사용하는 법구로 요령을 흔들면 여러 불보살들을 기쁘게 해줌과 동시에 어리석은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금강령(金剛鈴)로도 불리는 이 법구는 금강저와 함께 밀교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요령의 손잡이에는 여러 가지 장식 문양을 나타내고, 특히 종신부에는 용의 형상이나 불상 또는 사자왕 등의 문양을 조각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요령으로 널리 알려진 송광사 소장 금동요령(보물 제176호)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용의 형상을 각인해 놓았는데 그 작품성이나 연대 또한 현존 최고의 것이다.

요령은 인도에서 유래된 것인데 정작 인도에서는 볼 수 없고 중국 당나라 때 불교로 수용되면서 금강저와 함께 밀교의식을 위한 특수한 법구로 사용되고 있다.

경(磬)또는 경쇠는 주로 선반에 걸려두거나 책상위에 두고 치는 법구로 불경을 익을 때나 법회를 할 때 무리를 이끌어 가는 데 사용한다. 본래 동이나 옥 빛 돌로 만든 중국 약기의 일종이었으나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의식법구의 하나로 사용된다.

중경은 절이나 일반 기와 집 누각 등의 처마 끝에 다는 경쇠로 작은 종처럼 만들어 가운데 추를 달고 쇠로 봉어 모양을 만들어 매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옥보다 곱고, 산수보다 맑은 청아한 소리를 낸다.

금강저(金剛杵)는 제불존상이 가진 법구 또는 승려들이 불도를 닦을 때 쓰는 수행법구로, 저(杵)는 원래 인도에서 사용되던 무기였으나 부처님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이것을 들고 있어, 서천왕, 팔부중 등의 불교호법신들도 이 무기를 지니게 된다.

금강저는 모든 마군을 없애는 법구로 인식되며, 특히 밀교에서는 인간번뇌를 부숴버리는 보리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니지 않으면 불도수행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한편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열반경》에는 밀적금강역사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금강저로써 모든 악마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학생회를 모집합니다



고뇌하는 청소년들이여 지금의 나로 태어났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히 아니다. 모두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에 만족하고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나를 향상시키고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라.

불교 총지종 정각사에서 부처님과 함께 꿈을 실현하고, 자비를 실천할 학생회를 모집하오니 많은 교도가정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정각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전화 : 051) 552-7901

정각사 주교 경원 합장

총지논단

이원진리(二元眞理) ④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적 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구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한 교(敎) 안에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발전하는 것은 총화적 체용(體用)이 되게 함이니 중도적(中道)이고 타교(他敎)와 같이 종파로 상대가 되어 발전하는 것은 분화적(分化)의 이원(二元)이다.

공도적(公道)의 이원(二元)이요 이원공도(二元公道)가 크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일원중도(一元中道)의 체용법(體用法)도 공도(公道)의 이원법을 근사(近似)하게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

과거와 같이 승상하던 인도(人道)도 없어지고 종교도 일어나지 않으면 암흑한 속에 살게 되느니라.

자유세계 각 나라 가운데도 많은 종교와 많은 종파를 가져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만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하고 따라서 최상의 행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상대적 원리를 밝힘

전생인(前生因)이 이 생(生)에 과(果)가 되고 차생인(此生因)이 후생(後生)에 과(果)가 되는 것은 속명적 인과법이다. 현세에 부귀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현세에 잘 살고 있으므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내생에 잘 살고 죽어서 찬당 극락간다는 논리는 그들의 취미에 맞는 법설이 되어 있으므로 개념적 시주와 현실적 보시를 잘하게 된다는 것을 진각님이 다 알고서 부귀한 이를 애민히 생각하사 실상교문(實相敎門)을 열어 둔 것이다.

과거에서 복을 지어와서 현세에 잘 살고 있으므로 신앙적 미래문을 주로 열게 되니 소승(小乘)이다. 비유컨대 좋은 밭을 고쳐서 더 좋은 밭으로 개량이 되어질 뿐이다. 현세에서 인을 지은 것이 현세에 과가 되고 작년에 인을 지은 것이 금년에 과가 되고 어제 인을 지은 것이 이제 과가 되는 것은 자유자재하는 인과법이다.

법신(法身)은 하늘과 같이 속히 이루고 힘을 가져서 현세 복을 짓는 데 주가 되니나 그러므로 현세에 빈궁하고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미래 복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고로 현세에 잘 살것보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이제 비전함을 곧 해탈할 수 있고 현세에 행복한다는 논리는 그들의 귀에 맞는 법설이 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환하게 할 수 있는 회사법으로써 금액은 적어도 무상(無相)으로 자주 정공(淨供)하는 것이 유상(有相)으로 크게 한 것보다 과(果)가 더 크고 서원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은 진각님이 잘 알고서 지혜가 초월한 자거나 또한 박복한 이를 위해서 진리 교문을 열어 둔 것이다. 과거에서 복을 지어

오지 않아서 현세에 잘 못살고 있으므로 현세부터 행복되는 실천적 진리 교문을 열게 되니 대승이다.

그러므로 현세에 행복으로 잘 살고 가는 것보다 내세에 복이 더 크므로 복덕이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물은 액체라 수증기로 바뀌어짐과 같이 혁신이 되어 지는 까닭이다. 인도(人道)는 사람에 대한 가장 귀한 어진 중도이니 어진 것을 쓰시면 예(禮)를 세우야 하고 물도(物道)는 천지인 만물(萬物)에 대한 전체적 옳은 공도(公道)이니 옳은 것을 쓰시면 지혜를 열어야 한다.

한양 오백년은 어진 중도를 세우는 정치이기 때문에 동방 예의국이 되었던 것이요 현세에는 옳은 공도(公道)를 세우는 주의이기 때문에 문명지혜를 열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교에서도 진각님의 광명 지혜를 열어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함이다.

선업(善業)을 지어서 사람의 칭찬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상(無相)이다. 무상진리의 복과(福果)는 이세(理世)에서부터 받아도 크고 선업(善業)을 지어서 사람의 칭찬과 도움을 받게 되면 유상(有相)이다. 유상진리의 복과는 사세(事世)에 가면서 장엄하게 받아도 적으리라. 법계 진각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이천구백팔십일년 전 인도 카필라국 정반왕의 제일 왕비 마야부인에게 태자로 탄생하시어 설산 수도에 육년간 용맹정진하시다가 설흔 한 살되시던 해 이월 팔일 새벽에 비로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통하시고 뒤이어 사십 구년 설교하신 것이 팔만장경이며 증생교화에 무량 방편이 되어 있느니라.

진각출세(眞覺出世)

법계 진각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

하시어 증생제도 하시기 위하여 모든 세간에 인연 따라 백억 화신으로 나타나니 곧 과거불과 미래불이 다 법계 진각님의 화신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석가모니불의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석가모니불의 영체는 법계에 항상 계시는 진여법신(眞如法身)이



라, 형상 없이 계시어서 지금도 서방국토에 인연 따라 천백억 화신(化身) 응신(應身)을 나누시며 증생을 교화하시니라.

믿음

쉽게 믿을 수 있는 철성과 신을 숭상하게 되는 것은 불교로 들어오게 하는 첫 대문이다.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고 곧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귀의하고 법보화(法寶化) 삼신(三身) 안에 들어올 것이니라.

만약 거기에서 오래 집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소원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며, 만약 숭상하는 부모나 아내가 돌아간 뒤에는 전에 잘살던 흔적도 없게 되는 것임으로 곧 깨닫는 문으

로 들어오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깨닫게 되면 생전 복업보다 사후 복업이 크며 돌아간 뒤에 자손도 따라서 행복이 많을 것이며 법보화(法寶化) 삼신(三身) 이불(理佛)을 믿고 심인진리(心印眞理)를 깨쳐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게 되면

현세에 살아서 고통을 여의고 행복으로 살다가 또 죽은 후에 복락(福樂)은 세세 생애에 영원토록 불변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생전부터 복업을 이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죽은 뒤에도 그 복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실천

좋은 결과가 되는 육행은 회사(喜捨) 계행(戒行) 하심(下心) 용맹(勇猛) 염승(念誦) 지혜(智慧)이니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안락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심인불교(心印佛敎)에서 실행(實行)하고 오는 것은 불경(佛經)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六波羅蜜行)의 실천주의이니

이 여섯 가지 실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니라.

사람은 안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회사(喜捨)로써 아끼고 탐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계행(戒行)으로써 추잡한 행실과 악마 행동을 고치고 하심(下心)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眞心)을 고치고 용맹(勇猛)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염승(念誦)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智慧)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느니라.

현 시대 사람이 도덕을 몰라서 실행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주로 하는 철학으로 많이 알아서도 자기로서 행하지 못하고 가까운 부모 처자 형제 친척에게도 실행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철학은 물(物)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물질문명의 도구인 실천함을 주로 하는 철학으로 많이 깨닫는데 자기도 실천하고 처자 형제와 친척 타인에게 까지 실천케 하는 것은 현재 심인교도(心印敎徒)로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철학은 증생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정신문화의 도구인 것이다.

현정파사(顯正破邪)

바른 것을 세워서 사(邪)를 바꾸자. 정심(正心)을 세워서 사심(邪心)을 바꾸자.

정도(正道)를 세워서 사도(邪道)를 바꾸자.

정신(正信)을 세워서 미신(迷信)을 바꾸자.

착한 것을 세워서 악한 것을 바꾸자. <자료제공 총학연구원>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봄철과 장덕부지(藏德不止)



장덕부지(藏德不止)란 말은 "덕을 간직하여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늘 피곤해 절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활기찬 모습을 그리워 할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지경이 되었구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힘이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동을 하였을 때만이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 기운은 맑고 고요하면서 밝고 빛나는 까닭에, 참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 온 세상의 이름 있는 생물들이 본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힘이란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니 생명력이라 할 만합니다. 이런 생명력을 정당히 하기 위해서는 뜻이 한가

로워 욕심이 적고,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몸이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이리하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니 피곤하다는 말은 잊고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봄철만 되면 젊음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들꽃이나 숲을 관찰해 봅시다. 때가 되어 올라오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로 맞습니다. 봄은 활력의 시작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기점입니다. 겨우내 비축해 두었던 응축된 에너지와 봄기운이 어울려 찬 기운을 이겨내니 싹을 틔우고 멋진 재태를 뽐내는 것입니다.

만약 저축해 놓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싹도 못 틔우고 오히려 다스한 봄 기운에 지쳐 비실비실 하게되는 이른

바 춘곤증이라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봄만 되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며, 새로운 느낌으로 하루를 살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명 현상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들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반성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야 합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쉴 때 쉴 줄 알았다면, 만물이 영화로운 봄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살기가 바빠서 밤낮없이 움직이다 보니 봄철의 활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춘곤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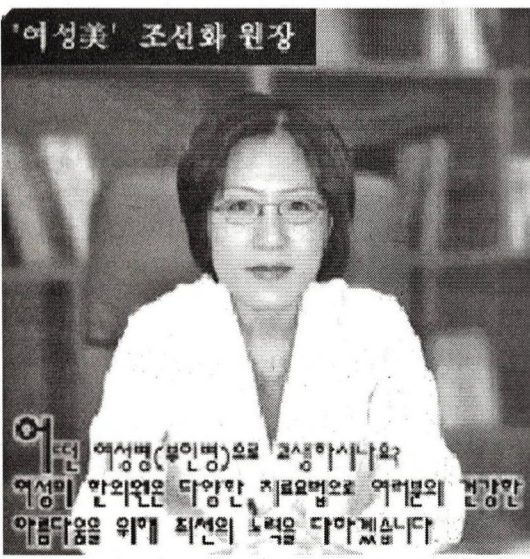
안타까운 인생에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으니 실망에 젖어 신세한탄 하지 말고 올라오는 싹들을 유심히 쳐다봅시다. 그리하여 마음에도 활력을 되찾읍시다. 자신감만 가진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

도 있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봄기운종이아 능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영양분)이 부족하여 잘 자라지 못하는 생물에겐 물을 주는 것이 수생목(水生木)이요, 잘 자라도록 햇살을 비춰 주는 것이 화생토(火生土)이니 춘곤증에는 쉬어야 할 때를 알아 쉴 줄 아는 지혜와 수생목, 화생토의 의미로 음식도 충실하게 먹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는 격려도 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할 것이고, 본인은 자신의 주체이므로 스스로가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마음을 다지면서 바른 손가락도 맛있게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운이 합해지면 몸기운도 봄철과 더불어 돌기 시작하니 이른바 장덕부지(藏德不止)가 되어 힘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美 한의원 ☎ (02) 545-0072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 제거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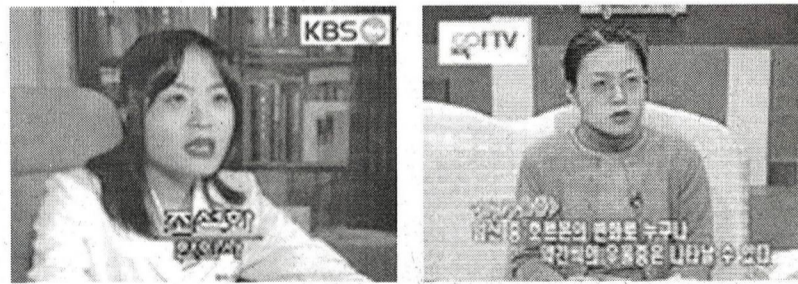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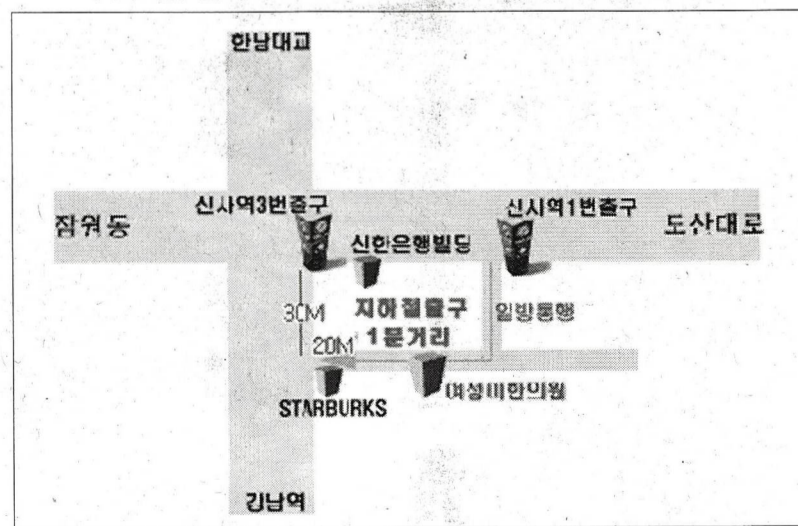
진료시간

- 평◎요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요일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 의 상담"



풍경소리

- 호박덩쿨

담 위에 가을벌이 환하다.
누런 호박 두 덩이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다.
의젓하다.
"저놈들을 저리 기르느라
호박덩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호박덩쿨은 가늘지만 역세다.
소 팔고 눈 팔아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던
시골 농부의 손처럼 역세다.
맞은 호박 알이 중간에 사들까 봐
애는 또 얼마나 태웠을까?
역센 손, 새까맣게 탄 속.

의젓한 호박들이여,
오늘 퇴근 때는 부모님 자실 술 한병,
고기 한 근 사가지고 들어가게나.
모시고 사는 것 괴롭게 생각지 말게.
사가지고 들어가 봐야 소용없는 사람도 있단네.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 정진권(한국체대 명예교수)-

-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네

송나라의 황산곡 시인은 참선을 마친 뒤
옆에 계신 조심(祖心)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단데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선(禪)과 같지요?"
"잘 모르셨는데요.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두 사람은 물푸레꽃이 활활 피어있는 산길을 따라
걸고 있었습디다.
"향기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선사가 물었습니다.
"예. 좋군요."
"거 보시오.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지요?"

- 맹난자(수필가)-

- 통(桶)자 인생

통 속 같은 아파트에서 자고
통 속 같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통 속 같은 지하철을 타고
통 속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통 속 같은 관(棺)속에 들어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궤적입니다.
통 속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생각조차 통조림이 된 듯합니다.

이제 관념의 뚜껑을 열고 푸른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주에는 칸막이가 없고,
구름의 길에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 정용철(시인)-

-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흐른다

물은 합치려는 의지로 흐른다.
돌부리에서, 가령잎 틈새에서 스며나온 물은
흐르다가 비껴서 만나고 독을 쌓아 막으면
틈새로 새어나와 다시 만난다.
그렇게 만나고 합쳐서 강이 되어 흐르고
강물은 다시 합쳐 바다에서 하나로 된다.

물소리는 서리가 그리워서 울부짖는 의침이다.
그리움 끝에 만난 물줄기인지라 포구에 다 와서는
웃음 짓는 만월을 띄우고 흐른다.

물의 여정은 하나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나뭇가지는 자라면서 갈라지지만
물은 갈수록 합쳐진다.
하나가 되려고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이
다.

- 류영국(소설가)-

나도 한마디 노인교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었으면

며칠 전 자성일 불공 설립시간에 스승님은 전근
무지에서 근무할 때 "한 노인은 아들이 사업하는 자
금을 보조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용
자를 받아 아들에게 주었으나 그 아들이 사업에 실
패하여 노인은 가지고 있던 집을 은행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결국에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천막에서
생활하는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스승님은 그 노인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종단의
사정상 사원주교의 재량이 제한되어 간간히 음식
과 의복을 도와줄 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
으나 천주교, 기독교 타 종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구
호활동을 하여 그 교도는 몇 십년동안 다니던 절을
그만두고 천주교로 개종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노인
교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
면 하고 애석해 하였다.

현재 총지종 교도들 중 60, 70대가 전체 교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종단적 차원에서 노인
양로원, 노인복지관, 노인 전문병원 등 다양한 형태
의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개설과 독지가의 유
상회사로 종단적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교도들
을 수용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우리 종단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존재하여 역
삼재가 노인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내 교도들을 위한 복
지시설 개설은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공감대와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운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 교도로서 이러한 일은 불
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교도들에게 종단
에 대한 사랑과 애증심에 대한 보답으로, 포교의 활
성화 방안으로 활용된다면 종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김지정)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
종 종단에 바리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여기서 "사리자"는
사리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시제법공상이란
"오온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것들의
모양은
공한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물질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적인 정신등.. 모든 것들은
공의 상태에 있으므로
불생불멸이란 말씀입니다.

저요~!
불생불멸.
하하하!
제가 말할게요.

아는 게
또 나왔다.



"앞으로 현대과학의
부족한 점을 메꿔줄
종교는 불교뿐이다"
라고 말이죠.

히히히...
깔고 앉아있던 책에
나온 말이걸랑....



불생불멸이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람이그치면
파도는 다시 사라지고
말지요?(물)



저 강물을 보세요,
원래 강물은 잔잔하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지요?(생)

강물은 원래 그대로
강물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The 4th Lantern Contest
제4회 등경연대회
연등축제의 주제이기도 한 전통등 문화의 현대적
복원과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정성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많은 창작등을 기대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접수대상
-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
2. 경연부문
- 단체 행진등 부문: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로서 참여대중이
들고 행진할 새로운 등
- 개인 창작등 부문: 개인이 자신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만든 순
수 창작등
3. 접수
- 기간: 불기 2547(2003년) 4월 7일 ~ 10일(4일간)
- 접수처: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4. 규격
- 단체 행진 등 부문-가로, 세로, 높이 50cm 이내
- 개인 창작 등 부문-가로, 세로, 높이 150cm 이내
5. 심사 및 발표
- 심사: 4월 11일(금)
- 발표: 4월 14일(월), 개별통보
6. 상금내역
- 부문당 최우수 1명(1,000,000원)
- 우수 1명(500,000원)
- 특선 2명(300,000원), 입선 각 약간 명(100,000원)
7. 특전
- 불기 2547년 연등축제 등 전시회 참가(5월 2일 예정)
8. 문의
- 조계종 불국사위원회 전화: 02)725-6641/
팩스: 02)725-6643/
hong@buddhism.or.kr
불국사위원회

수행의 가장 큰 목적은 부처님의 지혜를 깨치는 것입니다

모든 망상, 번뇌, 집착, 분별심을 버리는 수행이 최우선

어제 저녁부터 내린 가랑비는 아침에도 가는 나 그네의 옷깃을 적시듯 가늘프게 내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졸리우는 눈겨울을 비비며 청주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른 아침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으로 오고 갔다.

청주로 향하는 버스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들을 보며 자신의 직업을 간직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정취와 인연과 인연으로 서로 엮여지듯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주에 도착했을 때 가랑비는 그치고 자욱한 안개로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지만 차장밖엔 즐비하게 늘어진 고목들과 개나리와 백목련이 오는 손님을 환영하듯 활짝 피어 방긋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청주에 초행길이라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문화방송국을 찾았다. 문화방송국에서 내려 혜정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며 혜정사라는 간판이나 표시가 없나 하고 찾고 있을 때 한 보살님이 다가와서 "혹시 총지종 통리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다. 당황하며 무의식적으로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 보살님은 혜정사를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줄곧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 보살님과 함께 혜정사로 경내로 들어갔을 때 수증원 전수님은 겨우내 쌓였던 먼지들과 마음속에 채워진 번뇌, 망상을 청소하시 듯 건물들을 청소하시고, 나무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새싹이 빨리 돌아

님이 2년 1개월, 총기 13년에는 법정, 법지원 스승님이 1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수증원 전수님이 주교로 근무하시고 계신다.

불공의 공덕은 참 신기하다

수증원 전수님을 비롯한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보살님은 불공의 공덕은 참 신기하며 지난날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 보살님은 총지종이 창종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행 정진하신 분으로서 처음 절에 다닐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여 절에만 갔다 오면 집안은 이수리장으로 변했고, 하물며 미친 사람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가족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보살님은 불공의 공덕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주위의 어떤 압력과 자신의 내태함을 물리치고 절에 다니며 불공의 공덕으로 자녀들은 한결같이 착하며 부자로 생활하고 있어 예전에 자신을 압박한 사람들은 부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시며 불공의 공덕과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시며 자녀들에게도 꼭 절에 다니며 불공이라고 말할 하지만 자녀들이 불공에 태만하는 것 같아 서운해 하



수증원 전수님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8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며 극진히 모신다고 모셨지만 돌아가신 후 남은 것은 자신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조금 더 극진히 모셨을 걸 하는 후회만 남는다고 하시면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으로 가득하여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에게 쌓여진 업장과 번뇌를 소멸하여 보름달에 비취진 밝은 달과 같이 산속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같이 항상 청아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때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진하고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수행과 지극한 정진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결코 어떤 노력이나 수행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 그러나 그때 쓰러지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8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며 극진히 모신다고 모셨지만 돌아가신 후 남은 것은 자신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조금 더 극진히 모셨을 걸 하는 후회만 남는다고 하시면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으로 가득하여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에게 쌓여진 업장과 번뇌를 소멸하여 보름달에 비취진 밝은 달과 같이 산속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같이 항상 청아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때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진하고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수행과 지극한 정진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결코 어떤 노력이나 수행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잘 알고 있고, 항상 교도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어떤 때는 교도들에게 승직자로서 위엄한 자세로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하시고, 어떤 때는 따뜻한 어머니처럼 자상하여 교도들의 사소한 생활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행거 주시는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고 계신다.

전수님은 교도들은 너와 나라는 분별심이 없이 항상 한 가족처럼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며,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나의 어머니요, 작으신 분은 나의 동생,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며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고 교도들도 모든 교도들

이 가족처럼 생각하여 나를 많이 도와주어 교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보살은 살아있는 부처다

한 보살님은 총지종 교도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았더니 우리는 교도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을 보면 관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존재합니다. 그 분들은 항상 부처님처럼 생활하고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보살이라 부르는 것은 부처님처럼 행동하

따라 행동한 공덕에 의해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항상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수님께서는 사원신축 후 건물 뒤편으로 큰 도로가 생겨서 입출입이 불편하여 건물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을 종단에 요구하였다.

수증원 전수님과 혜정사 교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 몇 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흘러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어야만 했다.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혜정사를 나올 때 전수님과 보살님들이 "조심히 잘가리"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자식을 객지에 보내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모습과도 같았다.

흔들리는 버스안에서 창밖을 쳐다보니 이러한 안개속에서 비취진 희미한 모습처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증원 전수님과 혜정사 교도들의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를 마음속으로 서원하였다.

수증원 전수님

경진생으로 부모님들이 모두 불심이 돈독한 불교 집안으로 충북 청원군에서 태어나 전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유혹하였지만 엄격한 부모님의 교육과 불교에 대한 신심으로 인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불교의 인연 없애 위해 1985년 수증원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를 담당하는 승직의 계를 받게 되었다.

전수님은 승직에 계시면서 1989년에는 종의원에 피선되고, 1994년에는 원의원에 임명되었으며, 1997년에 제7대 중앙종의원에 피선되었으며, 2001년에는

부처님은 근본인지로부터 일어난 모든 것을 청정각성으로 원만히 관조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인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자성을 보는 지혜를 말하고 청정각성을 원만히 관조하는 것은 견성안 지혜로 번뇌를 끊는 수행을 말합니다.

나도록 작가지들을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탈하는 부처님의 모습처럼 인자하고 단아하게 보였다. 부처님의 전당, 금강 법계궁 법법의 총지 도량인 서원당에 들어갔을 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보살인 최영례(해보심), 부회장 보살인 신미자(이타심) 등 많은 보살들이 진언행자로서 수행정진하고 있었다. 불공을 다 마친 보살들은 모두가 환하고 밝은 미소로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라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수증원 전수님은 보살들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 과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했다. 또 어떤 보살님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이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의지할 곳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삼척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과 저녁으로 서원당에 나와 자녀의 이들을 동참관에 달아놓고 자녀를 위한 불공을 하였던지 며칠 후 아들은 그만두던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고, 아내와 이혼위기에까지 직면했던 일도 몇 년 동안 체인 배가 하루아침에 나아지 듯 없어지게 되었다. 그 보살님은 부처님의 공덕을 실감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내태할 때에는 자신이 받은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매일 서원당과 경내를 청소하시고 계신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실천을

수증원 전수님은 불교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승불교와 밀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근본진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도와주는 봉사야말로 진정한 자비실천의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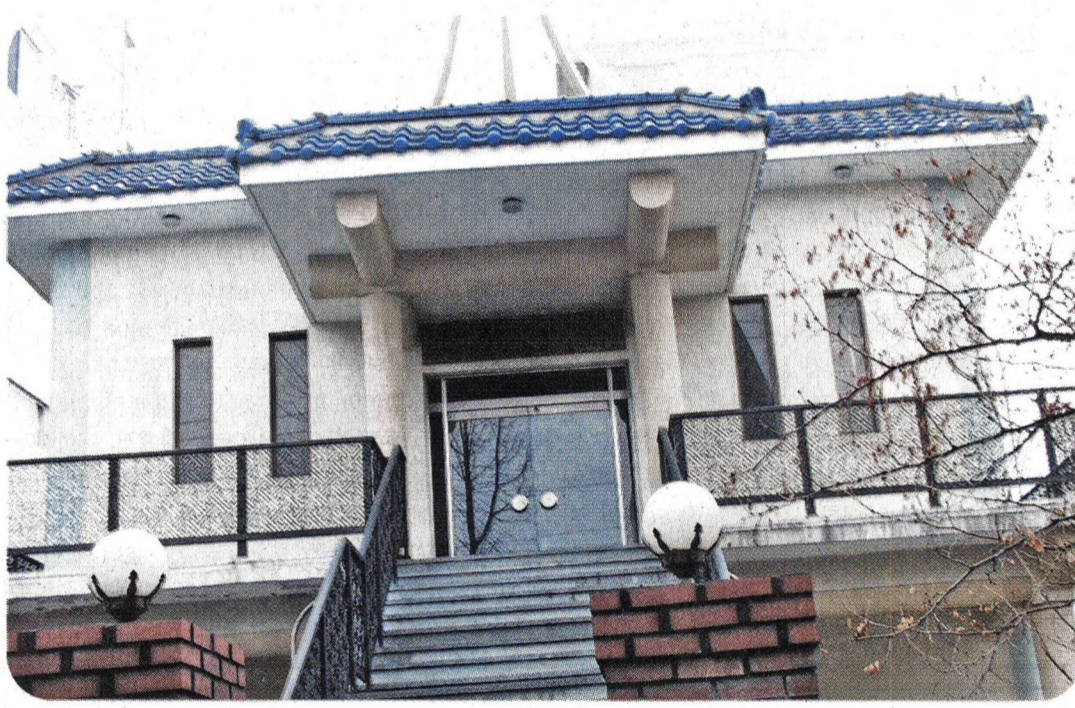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항상 착한 행동을 해라'라고 교육시키지만 정녕 본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지 한번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증원 전수님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년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생활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 까?' 하고 고민하던 중 전국 스승님들을 대상으로 매달 1만원씩만 모금하면 큰 금액이 되리라 생각하여 자비회라는 명칭으로 장학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스승님들에게 호응이 부족하여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불법을 공부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을 포교하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일은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스승님들을 설득하고 직접 종령님을 찾아가 자비회라는 공식명칭을 부여받아 현재는 스승님들의 협조로 많은 금액을 모금하여 이번 춘계 강공회에 모금된 금액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매달 금액을 보내주시는 전국 스승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모든 교도들은 가족이다

보살님들에게 수증원 전수님의 흥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더니 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착하다는 것이 흥이라고 말하였다. 수증원 전수님은 처음부터 혜정사 교도로 생활하다가 85년 승직의 계를 받고 혜정사 주교로 임명받아 혜정사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도들의 가족 한분 한분의 이름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쌓여진 업장과 번뇌를 소멸하여 보름달에 비취진 밝은 달과 같이 산속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같이 항상 청아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때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 공덕인지 모르지만 절에 올 때마다 남편이 직접 운전하여 절에 태워다 주시고, 절에서 불공하는 동안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고, 불공이 끝날 시간이 되면 자신을 태우러 절에 오시고, 집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염송을 한 덕분인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와 염송을 하지 않고 잠을 잘 때면 이상한 꿈을 꾸어 항상 염송을 한 후 주무시며,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자성일에 절에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불안해하는 것 같아 늦은 시간이라도 꼭 절에 다녀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살님은 총지종 교도로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항상 평온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순간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이며, 또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변화되고,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들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 조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지재단 이사로 선임되어 종단에서 중요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항상 상구 보리와 하화중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를 깨닫기 위해 철저한 수행으로 몽땅 정진하고 계신다.

충북 청주시 내덕동 651-1 ☎ 043)256-3813



서원당으로 개칭하고, 총기 5년 복문로 3가 79-1에 3층 건물을 임차하여 불단이설을 하고, 총기 7년 수동 117-1에 대지를 매입하고 수리하여 이설불사를 하고 혜정사로 개칭하였다. 총기 12년 청주시 내덕동 651-1에 대지 190평을 매입하였으며, 총기 16년에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신축하여 헌공불사를 하였다. 혜정사를 거쳐간 스승님은 총기 원년에는 대자행 전수님이 1년 7개월, 총기 3년에는 도자, 길선혜 스승님이 6년 3개월, 총기 9년에는 청암, 일성혜 스승

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당체법문을 증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체법문을 통해 마장을 미연에 예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면 삶을 운택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넉넉하고 즐거운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쉽게 사는 방법만 찾고 있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님은 경구려운 일이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암담하기만 하였습니

